

2025년 3월호(제 243호)

소중한 사람들

봄

울 봄은
더디 오는가?

슬픔이 많은 세상
그러나 당신은
넉넉히
이기고 오시리라 믿어요.

작은 풀포기처럼
보잘 것 없는 나에게

살아 있음을 향기로
살아 있음을 꽃으로
살아 있음을 어여쁨으로

사랑이 끝난 곳일수록
더욱 사랑으로 피어나라고
당부 하시는 당신

나는 당신을 지긋이 웃게 하고
당신은 나를 마냥 웃게 하는
봄!

시/ 유정옥

발행인 이성일, 유정옥

[소중한 사람들] 주소 04502 서울 중구 중림로 8길 12 · 전화 02-365-9106 · 팩스 02-365-9104 · www.ppp.or.kr

[소중한 사람들힐링센터] 주소 경기 가평군 청평면 큰갈월로226 · 전화 031-582-0191 · www.pphealing.com

소중한 사람들 암환우 힐링센터 이야기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출 15:26)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막 10:27)
암환우는 낫는 것이 사명이요. 사역입니다!

사랑은 결국 돌아온다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 욕을 듣기도 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힘든 일은 재판에 휘말리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시편에서도 시인이 송사로 인해 거짓 증언하는 이들을 향해 저주하는 구절들이 많은 것을 보면, 재판이라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겨운 일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재판이 힘든 이유는 사람의 마음을 소진시키고 삶 전체를 뒤흔드는 긴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샘물 호스피스의 원주희 목사님이 국가 감사로 인해 힘들어하실 때 찾아뵌 적이 있습니다. 작은 방 하나를 가득 메운 서류 더미에서 느껴지는 압박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결국 원 목사님은 감사 과정에서의 스트레스로 인해 위암까지 얻으셨지만, 그럼에도 너그러운 미소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재판 정도는 각오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역시 하나로 교회에서 사모로 섬기면서 교회 분양 사기 사건과 세금 문제로 오랜 민사 재판을 겪으셨습니다. 이번 재판은 무려 10년이 걸렸고, 이 긴 싸움 속에서 어머니는 마음과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고통을 견디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힘든 시간을 견딜 수 있게 해준 비결이 있습니다. 바로 곁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느 주일 서울역에서 어머니를 만났을 때였습니다. 어머니가 "이 목사님, 이것 좀 봐봐" 하시며 어떤 집사님이 보내준 장문의 문자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글을 보며 어머니는 큰 위로를 얻으신 듯했습니다.

사실 저는 문자를 쓰는 것을 귀찮아하는 성격입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그 글을 몇 번이고 다시 읽으며 소녀처럼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고, 내 글을 통해 상대방이 작은 위로라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정성을 다해 써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저 역시 따뜻한 답장을 받는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어머니가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실 수 있었던 것은 평소에 어머니가 주변 사람들에게 먼저 위로의 글을 보내시고, 그들을 위해 꾸준히 기도하시며, 언제나 따뜻하게 대해주셨기에 그런 사랑을 돌려받으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삶이 고단해지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조차 잊게 됩니다. 스스로의 표정이 굳어지고, 타인과의 관계가 점점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사실 모든 사람이 나와 완벽하게 맞을 수는 없습니다. 나 역시 다른 사람들에게 완벽한 사람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밝은 미소로 사람을 맞이하지 못한다면, 목사라는 직분을 내려놓아야 하지 않을까요?

어머니가 3월 5일에 선고가 잡혀 있었는데 놀랍게도 법원에서는 4월 달로 재판을 미루고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지난 10년간 단 한 번도 어머니의 말씀을 들어주지 않았던 법정이 드디어 어머니의 1심 선고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해 준 것입니다.

법원에는 어머니를 위한 300개가 넘는 탄원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 탄원서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탄원서들은 알아서 그냥 온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가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어 오신 따뜻한 위로와 진심어린 기도, 사랑과 관심의 결실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가장 힘든 시기에 큰 위로와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평소에 어머니가 먼저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나도 언젠가 견디기 힘든 순간이 오지 않을까요?

그런 날이올 때에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은 따뜻한 미소와 사랑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웃을 수 있는 날들에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기 위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 삶이 고되고 지칠 때일수록, 내가 먼저 웃으면 주변의 얼굴도 환히 밝아지고, 그 밝은 미소가 다시 나에게 돌아 올 것입니다.

글 / 이성일 목사

방과 후 학교와 청소년 컴퓨터 교실

우리는 아이티에 도착하자마자 아이들에게 방과 후 학교를 개설했다.

학교를 끝마친 아이들을 위해 낮1시에서 5시까지로 정했다.

아이들이 아침부터 와서 대문을 두드린다. 너희들은 학교도 안가니? 아이들은 학교에 다니지 않는다. 갈 곳이라고는 없는 아이들은 소중한 사람들 센터가 집이고 학교이고 놀이터인 것이다. 대부분 학교에 가지 않지만 혹시 몰라서 우리는 그렇게 시간을 정했다.

그런데 덩치가 큰 사람들까지 오는 것이다. 그래서 안보상 어쩔 수 없이 13세 미만으로 정했다. 들어오는 대문에 쪽문을 두고 한 사람씩 들어오게 한다. 별의 별 사람이 다 있기 때문이다. 일단 들어오면 그들의 세상이다. 선생님을 두고 공부와 성경을 가르치고 찬양을 한다.

그들에게 점심을 나누어 준다. 본래 주식이 쌀이지만 쌀을 먹는 것은 하늘에 별 따기다.

우리나라 20kg이 4만원 할 때 중국 쌀로 20만원이 넘는다. LPG 가스도 20만원이 된다.

물을 끓여 먹어야 하는데 가난한 아이티 국민들은 꿈도 못 꾼다. 오물 같은 물을 그대로 먹는다. 화장실 변기를 계속 갈아야 한다. 파손되고 고장이 나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변기를 어떻게 사용할 줄 몰라서 어떤 아이는 변기 위로 올라가서 변을 본다.

송 선교사님은 아이들을 위해 점심을 맛있게 마련한다. 또 매일 봉지 물을 사서 두 개씩 아이들에게 준다. 빵도 주고 웃도 준다. 빵을 받은 아이들은 집안 식구를 생각하며 먹지를 못한다. 소중한 사람들은 집안 식구들을 줄 수 있는 빵을 넉넉히 주고 물도 주고...주고 또 준다.

아이들은 구충제를 먹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다. 그래서 구충제도 주고...

아이들은 누나가 아기를 낳으려고 한다면서 송 선교사님을 불러 댄다. 송 선교님은 아이티의 산파다.

매일 100여명이 오는데 이들의 꿈은 미국으로 가는 것이다. 천국보다 미국이다.

이들에게 한국어도 가르치고 작은 천국을 이루어 가는 것이다.

그런데 김용수 선교사님이 여기 오는 아이들 13세 이상의 아이들에게 컴퓨터를 가르치려는 꿈을 가지게 된 것이다.

어떻게 그 꿈을 이룰 수 있을까?

시카고에서 의사들이 25명이 들어온다는 것이다.

나는 그 곳에 부탁을 했다. 25명이 한 명씩 컴퓨터를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다.

이것은 기적을 이루는 것이다. 아이티 공항에서는 얼마나 부정과 부패가 심한지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컴퓨터를 가지고 들어오다가 세관에 붙들리면 다 끝장이 나는 것이다.

식가 2만원의 모기장도 걸려서 빼앗기는 판에 이것을 어찌해야 좋을지...

또 컴퓨터를 가지고 들어와서 트럭을 타면 트럭에 올려 진 컴퓨터가 고스란히 올 수가 없다. 길은 비포장도로에다가 신호등도 차선도 없다. 트럭이 길에 서게 되면 길가에 서 있던 강도들이 갖고 있던 갈고리로 트럭의 물건들을 훔치는 것이다.

마음을 조이던 시카고 의사들이 들어오던 날

공항에서 한 명도 걸리지 않았고 길가에서 도둑도 안 맞고

25대의 컴퓨터가 들어온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이루신 것이다.

그리고 함께 온 컴퓨터 박사가 컴퓨터를 설치하는 기쁘고 즐거운 밤을 맞이했다.

그 때부터 25대의 컴퓨터는 컴퓨터를 배우려 온 아이티 청년들에게 전 세계와 소통 할 수 있는 꿈을 주고 있는 것이다.

글/ 유정옥

소중한 사람들 서울역 쉘터(SHELTER) 이용안내



누가 사용 할 수 있나?

1. 소중한 사람들 힐링센터를 이용하시고 계신 분.
2. 소중한 사람들 힐링센터를 이용했던 분 중에 지내는 동안 문제가 없었던 분들.
그러나 누구든 암환우여야 하고 병원 이용의 스케줄이 있어야 합니다.
3. 특별히 방사선 치료시에는 방사선 치료 진단서를 가져오시면 치료하는 동안 머물 수 있습니다.

쉘터 이용안내

1. 소중한 사람들에서는 병원에 갈 때에 셔틀 운행을 하고 있는데 돌아오는 시간이 환우들마다 달라서 돌아오는 셔틀 운영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쉘터가 시작되면서 돌아올 경우 서울역에서 돌아오면 되도록 하였습니다. 돌아올 때에는 김태희 전도사님과 상의하셔서 스케줄을 맞추시면 됩니다. 단, 하루 이틀 서울역에서 머물고 돌아올 수 있으니 먼저 돌아오길 원하시는 분은 기차로 이전처럼 돌아오시면 됩니다.

2. 퇴소했던 분들 중에도 지방에서 서울로 오셨을 경우 쉘터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동안 쉴 곳이 없어서 다른 친인척의 집이나 여관을 전전하셨던 분들에게 희소식이 될 것입니다.

3. 3일 이상의 장기 거주는 불가합니다. 다만 방사선 치료의 경우에만 치료 기간 동안 거주가 가능합니다.
보호자의 경우 소중한 사람들 힐링센터에 입소하셨을 때에 등록하신 보호자는 이용이 가능합니다. 아무나 머물 수 없음에 양해를 부탁합니다.

소중한 사람들 쉘터에서는 아침, 점심, 저녁 세끼 모두 제공됩니다. 예배는 소중한 사람들 힐링센터에서와 동일하게 오전11시, 저녁 7시 예배가 드려지며 3층 채플실에서 TV로 함께 드리게 됩니다.

소중한 사람들 리트릿 센터(Retreat Center)

말씀과 자연, 쉼을 통하여 힐링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기도원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현대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엘리야처럼 로뎀 나무 아래에서 평안한 쉼을 얻는 것입니다.

● **입소 기준** : 예수 믿는 누구나 쉼을 원하시면 입소가 가능합니다(다만 정신 질환, 전염병이 있는 분, 이단 단체 및 개인, 기타 공동체 생활이 어려운 분들 제외).

● **입소 기간** : 한번 신청 시 최대 6일을 지낼 수 있으며, 퇴소기준은 토요일 오전입니다. 따라서 목요일에 오셨더라도 토요일 오전에는 모든 입소자가 퇴실하게 되는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 **입소 비용** : 무료입니다.

● **입소 수칙** : 하루 두 번 예배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며 믿음이 있는 분이셔야 합니다. 따라서 입소 절차에서 교회 출석을 점검합니다. 또한 공동체 생활이므로 공동 생활을 원치 않으시면 입소가 어렵습니다. 최대 3~4명 정도가 같이 지낼 수 있습니다.

입소를 원하시는 분들은 연락을 주십시오. (031-582-0191) – 소중한 사람들 힐링센터 –



리트릿 센터 이용 후기

리트릿 센터를 이용하셨던 분들의 소중한 후기를 담았습니다.

1. 노*숙(6일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소중한 사람들 힐링센타에 오게 되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와 방송을 통해서 유정옥 사모님의 간증을 듣고 많은 감동을 받았고 계속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면서 꼭 와보고 싶었습니다. 공기도 좋고 경치도 아름다운 곳에서 하루에 두 번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중보기도 시간에는 다른 환우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건강한 식재료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주시는 분들께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몸과 마음이 힐링 되는 시간이 주워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누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2. 나*희(6일간)

예배와 기도에 대한 갈급함이 더욱 커져 갔습니다. 그러던 중에 리트릿센타의 인도함은 구원의 방주에 도착한 듯한 감사함과 든든함이었습니다. 하루 두 번씩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말씀이 선포되고 중보기도회 시간을 통해 리트릿 생활은 나의 피난처요, 요새시요, 방파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는 복된 시간들이었습니다. 아울러, 육의 양식도 규칙적으로 맛있고 절제 있는 식사를 하니 이 또한 생명의 꽃로 감사했습니다. 5일간의 리트릿 센터 생활에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앞으로도 주님의 때에 소중한 사람들 힐링센타 힐링센타에서 역사하실 주님의 선하신 손길을 기대하며 소중한 사람들 힐링센타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3. 강*숙(5일간)

저는 웃음치료 봉사를 하면서 만났던 암 환우들을 보면서도 암은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막상 제가 암 진단을 받고 나니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교회보다는 세상일에 더 바빴던 제가 다소 부담스럽고 지루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지만, 소중한 사람들에서 하루 두 번의 예배와 중보기도 시간은 나의 메말랐던 영이 조금씩 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맑은 공기를 마시며 귀한 약수로 지은 밥을 먹고 씻으면서 제 육신의 회복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갑자기 마주하게 된 암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세심하게 지도해 주시는 목사님께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소중한 사람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성거주시는 모든 분들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4. 민*숙(5일간)

사랑하는 딸이 유방암으로 진단받고 나서 수술과 항암 치료를 위해서 어린 세 명의 자녀를 둘보면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연히 알게 된 소중한 사람들 힐링센타에 아무런 준비 없이 오게 되어서 많은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육적인 모든 것이 비워질 때 하나님이 채워주심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쁨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저희 가족을 도우시는 분임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5. 최*규(6일간)

소중한 사람들 힐링센타에 다녀간 사람들이 공감하겠지만, 이곳의 좋은 물과 공기는 힐링 그 자체입니다. 거기다 힐링센타 모든 환우들이 회복을 바라는 마음으로 격려해 주고 도와주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듯이 어떤 반찬이 나와도 다 맛있는 것 역시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리트릿센타에서 한주를 보내면서 신체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온몸에 가려움증이 없어졌고 성경을 읽거나 찬양할 때에 숨이 차던 것이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이곳에 있으면서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던 증상이 사라졌고 배가 부르고 포만감이 심해서 방귀가 많이 나왔는데,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6. 김*애(6일간)

저는 처음으로 혼자 집을 떠나게 되었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며 기도와 찬양, 그리고 중보기도를 하게 함으로 처음 주님을 영접했을 때의 순수함으로 돌아갈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현재 유방암으로 림프부종이 생겼지만 이 또한 치료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항상 모든 것에 감사하며 생활할 것을 결단합니다. 소중한 사람들을 섬기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7. 곽*정(6일간)

월요일 CT촬영이 있어 화요일 입소하게 되었는데.... 따뜻한 보살핌과 날마다 드려지는 예배와 찬송, 중보기도로 몸과 마음이 회복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건강한 음식을 맛있게 먹고 좋은 공기 마시며 산을 오르고, 함께 치병하는 환우들과 소통하며 예배하고 뜨거운 중보 기도와 찬양으로 위로받고 몸과 마음이 온전히 치유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리트릿센타에 입소했던 기간이 2주간 항암약 복용 후 휴약기였는데, 가장 좋은 때 리트릿센타로 인도하셔서 퇴소 후 23차 항암에 앞선 혈액검사에서 호중구수치가 껑충 뛰어올라서 온전히 회복케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8. 박*순(6일차)

위암 전절제로 항암은 끝났지만 혼자 지내다보니 여리모로 힘들었는데, 갑작스럽게 이곳이 생각이 떠올라서 무조건 전회해서 올수 있게 되었습니다. 차를 타고 한참 산속으로 들어가 입구에 도착하니 돌비석에 쓰인 '소중한 사람들'이란 글귀를 보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날마다 예배와 산책은 너무 귀하고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곳에 있으면서 환우들을 볼 때, 한결같이 인상이 밝고 서로를 향한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이미 암을 다이 기고 승리한 것처럼 보여서 보는 것만으로도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변 환경도 너무 좋았고 하루하루가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오전, 오후 산책으로 컨디션도 갈수록 좋아진 것을 몸소 느껴졌습니다. 음식도 끼니마다 정성껏 수고한 손길을 통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계속 이런 환경에서 산다면 영육이 강건해 지리라는 확신이 들 정도였습니다. 기회를 봐서 또다시 와야겠다고 생각하고 나를 인도하신 종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감사합니다.

목요 Precious Worship

소중한 사람들 힐링센터는 매주 목요일 중보기도회를 가집니다. 동역자 여러분들의 중보기도를 부탁드립니다.

1. 김*자(담도인재방, 장궁경부, 칠, 직장진이) - CT검사 암 크기가 커지지 않아 감사하며, 임피지 면역항암제로 2번더 하고 3월에 CT결과 보고 항암약을 바꾸기로 함, 통증을 잡아줄 수 있는 최상의 약을 찾아주옵소서
2. 배*경(폐암) - 3주 간격의 독성항암 주사제를 맞고 있는데 악성종양이 깨끗이 치유되고 부작용(숨기쁨, 기침, 오심, 통증, 불면 등)이 치유되기 원합니다.
3. 전*희(난소암, 복막진이) - 1개월 동안 지금의 면역항암제를 쓰면서 많이 회복되어 감사하며 더 이상 내성에 대한 불안이 아닌 완전관해로 끝까지 치유해 주시길
4. 김*일(폐암) - 현재 13차 항암치료로 중이지간 내성 없이 잘 유지되고 있음에 감사하며 이 약으로 깨끗이 치유되길 기도합니다.
5. 박*정(난소암) - 2/7일 검사 결과 골반내 재발암과 복부내 림프절 암 크기가 커졌다고 합니다. 6개월 약을 퍼보고 검사 후 새로운 항암제는 일상이든 찾아보겠다고 합니다. 몸에 맞는 최상의 항암약을 주시고 자기체 유능력이 활성화되어 건강이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6. 장*형(폐암) - 표적치료제로 치료 받고 있는데 전이된(목뼈, 폐, 고관절, 고리뼈) 부분도 깨끗이 낫기를
7. 유*열(폐암, 흉막4기) - 2/11일 항암주사 부작용 없이 잘 맞게 하실 감사하며 흉막에 있는 암세포가 깨끗이 치료되기를 기도합니다.
8. 서*민(비인두암4기, 임파선전이) - 항암, 방사선 부작용(이명, 중이염, 청각학하, 노시림, 구내염, 말초신경염, 손발저림)에서 벗어나게 하옵시고, 오랜 병마로 인한 재정의 어려움도 주님께 맡깁니다.
9. 김*임(췌장암) - 23년 8월에 웨정암 진단을 받고 지금까지 30번의 항암증입니다. 12/3일부터는 먹는 항암제로 치료받고 있는데 약이 너무 독하여 지금은 중단 중에 있습니다. 주님이 치료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10. 한*웅(폐암4기, 뇌, 뼈) - 폐, 뇌, 뼈에 있는 암이 점점 사라져서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돌아와 관해를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1. 황*진(유방암, 간진이) - 림프관통증으로 인해 림프순환이 되지 않아 치료중입니다. 림프부종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 보호로 지켜 주옵소서
12. 이*옥(유방암, 흉선암) - 3년 동안 가려웠던 원인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피부림프종 치료의 길을 열어주소서
13. 정*순(유방암, 폐, 림프전이) - 검사 결과 커지지 않고 약간 줄어 표적항암제 용량이 무리되지 않으면 그냥 쓰고 3개월마다 검사하고 1달에 번씩 주사 치료하기로 함. 부작용(관절통, 턱관절, 구내염, 알레르기) 치유하여 주시고 내성 생기지 않고 오래 살 수 있기를 기도함
14. 장*순(유방암) - 표적치료를 하는 동안 부작용 없이 잘 마치고 완치하여 주어진 시망 잘 감당하도록
15. 원*분(담도암, 간진이) 항암제(립소보) - 12/30일 결과 암이 흐리지고 모양이 작해졌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열하셨음을 나타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16. 이*경(직장암, 폐전이) 직장암 수술 후 1년 뒤에 폐에 전이가 되었습니다. 폐에 생긴 결절이 수술이나 항암치료 없이 회복되어 사역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17. 조*구(혈액암, 비강부위 림프종) - 총 6번의 항암 중 5차 항암 마치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중간 검사에서 이전 암 부위가 깨끗해졌다는 판정을 받고 나머지 항암을 진행하는데 부작용 없이 잘 마치기를
18. 김*민(B세포 림프종) - 2/10일 진료를 통해 복강 내 B세포 림프종이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소식 듣게 하실 감사하며 6/2일 진료까지 호흡곤란의 근본적인 원인 찾기를 기도합니다.
19. 최*영(난소암) - 난소암이 재발해서 현재 독성항암제로 치료중입니다. 면역력을 키워서 재발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20. 김*숙(폐암) - 1/20일 폐암 수술을 했는데 이전보다 더욱 건강한 폐로 회복시켜 주시고 몸의 모든 염증과 암세포들을 소멸시켜 주옵소서
21. 이*희(유방암) - 주님 말씀을 통해 매일 영 훈, 육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전복훈련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워주세요
22. 정*정(난소암) - 여호와께서 정은장을 병상에서 붙드시고 누워 있을 때마다 정은정의 병을 고쳐주소서
23. 최*숙(육종암) - 독성항암 칼내고 다시 항암합니다. 악이 잘 듣기를 원하여, 기침 때문에 김마이크 치료가 연기되었습니다. 속히 기침이 멎추고 다시는 머리와 눈에 총성이 생기지 않기를
24. 김*덕(폐암, 간경, 치골전이) - 항암 후 1/6일 결과 암이 보이지 않는다는 기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암모방병의 순회하면서 복음 전파하는 성도되게 하여 주옵소서
25. 정*희(유방암 4기) - 유방암이 폐임파선, 뼈 등에 전이되어 표적항암제로 치료중입니다. 주치의에게 지혜를 주사 적합한 치료제로 치료기간이 단축되기를 기도합니다.
26. 하*영(난소암) - 2개월 만에 내성이 생겨 항암이 중단되었고 암세포가 징을 미비시켜 3주째 음식을 먹지 못하고 물만 마셔도 구토합니다. 막힌 징이 풀리고 다시 식사하고 일상이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27. 박*진(다발성 골수종) - 몸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 몸의 모든 기능과 통증을 치유해 주시고 오장육보가 제 기능을 잘 하여서 먹는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기를 기도합니다.
28. 선*색(면도암) - 수술을 잘 마치고 지금까지 후유증 없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신에 감사하며 2/17일 병원 진료 있는데 좋은 소식 듣기를 기도합니다.
29. 방*란(폐암) - 항암 25번 하였고 현재 새로운 약으로 3차 항암 시작했습니다. 항암 후유증을 잘 견딜 수 있도록 힘주시고 악성 종양이 모두 치유되어 다음 검사시 좋은 소식 있기를 기도합니다.
30. 정*네(유방암, 간경, 림프전이) - 일상을 신경했는데 좋은 약으로 선정될 수 있게 치료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암 환우들을 위한 중보기도회

- 일 시 :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 장 소 : 소중한 사람들 암환우 힐링센터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큰갈월로226)
- 말 쓰 : 유정옥 사모
- 기도회 인도 : 이성일 목사

※기도모임을 함께할 재능기부자들을 기다립니다.※
(PPT 만들기/건반/기타/그 외 악기연주)

페이스북, 유튜브에서 유정옥사모의 설교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업로드 되는 영상의 알림을 받으시려면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소중한 사람들 힐링센터
www.facebook.com/preciouspeoplehospice



Hospice Precious People
www.youtube.com/user/miholoveone

목요기도회



서울역 이야기

서울역 전도

소중한사람들은 매주 주일 서울역 광장으로 노방전도를 나갑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리라"는 말씀에 순종합니다.

금요일 오후, 소중한사람들 상담실은 활기로 가득 찹니다. 주일 서울역 광장 노방전도를 위해 나눌 것을 준비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후원자들이 보내준 간식과 후원품, 그리고 푸드뱅크를 통해 받은 음식들을 정성스럽게 봉투에 담습니다.

주일이 되면, 노숙인들은 이 봉투를 받고 수줍게 감사를 표현합니다. "고맙습니다"라는 그들의 속삭임은 봉사자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줍니다.

봉사자들은 노숙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소박하게 나누어 드리고, 노숙인들은 감사로 화답합니다.
일방적으로 주기만 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우리도 그들의 마음을 받습니다.



소중한사람들 교회



▲ 소중한사람들



▲ 점심식사 전경



▲ 서부침례교회



▲ 미대부초학부모성경동독팀



▲ 에클레시아



▲ 조이어스교회



▲ 함께올래



▲ 서빙고온누리교회



▲ 새빛소



▲ 예수향교회



▲ 모래내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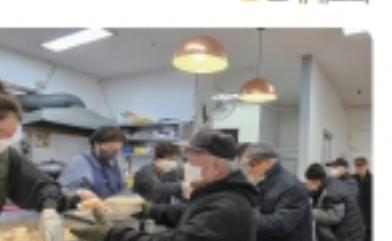
▲ 개인봉사자



▲ 개인봉사자



▲ 개인봉사자



▲ 개인봉사자



▲ 점심식사

소중한사람들 교회 매일 오전 10시 30분 예배와 점심나눔

노숙인들이 마음 놓고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 세워주신 노숙인 전용 교회인 소중한사람들 교회는 명절이나 휴일도 없이 365일 하루도 쉬지 않고 예배를 드려온 지 21년을 되었습니다.

소중한사람들은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예배를 드리고 하루 150명의 노숙인들에게 점심을 나누고 있습니다.

2월에는 1일 서부침례교회 4일, 18일, 25일 이대 부속 초등학교 학부모 성경 동독반 8일 에클레시아 11일 조어어스교회 15일 함께올래 19일 새빛소 21일 예수향교회 22일 모래내교회 28일 강동온누리교회에서 봉사해 주셨습니다.

개인 봉사자들은 권경희, 김미정, 김성수, 김순희, 김명옥, 김영옥, 김진숙, 김현숙, 박은순, 박진희, 송경옥, 송홍렬, 이소영, 이영훈, 이은영, 임윤엽, 양지니, 전두희, 진경희, 정성훈, 조희진, 진경희, 최경희, 최금련, 정성훈, 최인선, 황부영, 황귀용, 황보혜, 한에스더 님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김용수, 송기승, 이지영, 허청만, 한송희, 김경숙, 김광래, 정경희, 임맹자, 박인혜, 박문희, 장종숙, 강덕희, 김명옥, 이주희, 윤화, 이황희. 개인 봉사자들이 주일에 수고해 주셨습니다.

소중한사람들 교회는 노숙인들에게 영양있고 맛있는 밥을 대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숙인들이 매일 예배 할 수 있는 곳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 주는 것이 더욱 중요한 사명임으로 열심히 전도하고 있습니다. (서울역 전도팀: 이주희, 김명옥, 진승연, 정종대, 송기승, 최영화)

소중한사람들 무료 급식과 예배를 통하여 날마다 구원받는 영혼이 더하여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말씀을 전하시는 월요일 이범주 화요일 김재정 수요일 정기종 목요일 조진영 금요일 이은철 토요일 유정옥 주일 이성일 목사님께 말씀의 능력과 치혜를 주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다양한 봉사 참여

다양한 봉사로 소중한 사람들과 동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찬양으로 봉사하시는 이대부속초 성경통독팀과 소중한찬양단
- *서부침례교회 특송
- *소식지 우편물 봉사를 해주신 이대부초성경통독팀
- *2월 8일 (토요일) 14명의 노숙인들에게 무료 진료를 해 주신 선한목자병원 이창우 원장님과 간호사 선생님
- *2월 22일 (토요일) 30명의 노숙인들에게 이발 봉사를 해 주신 이발 미용 봉사단
- *간식 나눔과 후원물품 나눔으로 함께 봉사에 참여해 주신 많은 팀과 개인봉사들

모두 감사합니다



▲ 금요일 설교자 이은철 목사님



▲ 소중한찬양단



▲ 미미용봉사



▲ 서부침례교회 특송



▲ 선한목자병원



▲ 소식지 우편물 봉사



▲ 이대부초성경통독팀 찬양인도



▲ 화요일 설교자 김재평 집사님



▲ 서울여광장 전도 물품 나눔

후원물품

후원물품

- *단백질쉐이크를 후원해주신 김병국 님
- *귤을 후원해 주신 강동온누리교회
- *돼지고기를 후원해 주시는 노아
- *소고기를 후원해 주시는 하나프라임

빵과 과일, 그리고 여러 후원 물품으로 노숙인분들을 위해 섭겨주신 후원자 분들의 섬김으로 따스한 봄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2월 후원 물품내역

후원일	후원자	후원물품	후원수량	사용일	사용내역	사용처
2/3	푸드뱅크	빵/부식	6박스	2/4	급식	소중한사람들교회 노숙인
2/5	송경옥	오이	1박스	2/6-	급식	소중한사람들교회 노숙인
2/7	푸드뱅크	빵/부식	5박스	2/9	나눔	서울역 거리노숙인
2/10	푸드뱅크	빵/부식	4박스	2/11	급식	소중한사람들교회 노숙인
2/12	김병국	단백질쉐이크	28박스	2/13-	급식/나눔	서울역/소중한사람들교회
2/14	푸드뱅크	빵/부식	4박스	2/16	나눔	서울역 거리노숙인
2/17	푸드뱅크	빵/부식	6박스	2/18	급식	소중한사람들교회 노숙인
2/20	(주)노아	돼지고기	6박스	2/21-	급식	소중한사람들교회 노숙인
2/21	푸드뱅크	빵/부식	4박스	2/23	나눔	서울역 거리노숙인
2/24	푸드뱅크	빵/부식	5박스	2/25	급식	소중한사람들교회 노숙인
2/28	강동온누리교회	귤/간식	2박스	2/28	급식	소중한사람들교회 노숙인
2/28	푸드뱅크	빵/부식	5박스	3/2	나눔	서울역 거리노숙인
2/28	하나프라임	소고기	7박스	3/1-	급식	소중한사람들교회 노숙인



▲ (주)노아 - 돼지고기



▲ 강동온누리교회 - 귤



▲ 김병국 - 단백질쉐이크 28박스



▲ 송경옥 - 오이



▲ 푸드뱅크 - 바나나



▲ 하나프라임 - 소고기

상당 · 치유 · 봉사

선한 목자병원 이창우 원장님 18년동안 한결같은 사랑의 손길

주님이 병자들의 상처를 어루만지며 치유해 주신 것과 같이 18년동안 한결같이 노숙인들을 찾아와 치료해 주시는 선한목자병원 이창우 원장님을 기다리는 노숙인들은 마치 아버지를 만난 듯 아픈 환부를 보이며 치료를 받는다. 외상이 심한 환자는 이창우 원장님의 즉석에서 수술까지 해주신다.

매월 둘째주 토요일 1시부터 진료가 있다



증보기도 모임

소중한 사람들 사역을 기도로 돋기 위해 모이는 화요 증보기도 모임이 어느덧 1046회가 되었다.

소중한 사람들 사역의 종합적 기도 제목을 기도한 후 참석자 개개인의 증보 기도를 구체적으로 합침하여 기도한다. 증보기도 모임은 소중한 사람들을 이끌어 가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다. 기도로 하나님의 사역을 돋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함께 하기를 바란다.

증보기도 제목

1. 소중한 사람들 사역

- 1) 노숙인들이 예수 영접, 건강, 직장, 가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 2) 소중한 사람들 교회 365일 예배와 점심 나눔을 통해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 3) 진료, 상담, 샤워, 이발, 의류 생필품 나눔의 공급과 봉사자
- 4) 타국인을 섬기는 소중한 사람들 이주민 센터 사역을 위해

2. 소중한 사람들 암환우 힐링센터 운영

- 1) 최고의 의료진이 동역 할 수 있도록
- 2) 암환우들의 영, 육간의 완전한 치유

3. 소중한 사람들 해외사역

고아 1:1후원 양육과 무료 급식-미안마, 중국, 멕시코, 북한, 아이티

4. 아이티 사역

- 1) 교육 - 방과후 학교, 컴퓨터교육
- 2) 고아 1:1후원
- 3) 싱글맘 사역
- 4) 형무소사역
- 5) 무료진료
- 6) 손전등 보급

5. 치유 - 신형진, 최유운, 김정신, 정종대, 정은영, 황우진, 김연자, 이해우, 박효정, 배윤경, 이재희, 정은정, 정종순, 전상희, 김동일, 최성숙, 김홍덕, 정경희, 장경순, 장호형, 원명분, 허혜영, 박수진, 이희경, 유옥렬, 서정민, 김순임, 한치용, 조일구, 김주연, 선종석, 방미란, 정소녀, 최은영, 김동숙, 입소해 있는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6. 박효정, 이해호, 이복희, 이상철, 이희열, 이기열, 박영례, 김현충, 최은희, 이해숙, 김연희, 이옥경, 안정희, 유춘애, 이영숙, 정동익, 이정화, 고혜옥, 김순정, 최정임, 권은미, 이미진, 신현숙, 박경미, 황순찬, 구재온, 인종복, 김미희, 윤채원, 장영희, 김하양, 이순조, 김지윤, 김형식, 권유승, 이은규, 주재희, 허미옥, 최봉관, 육춘기, 최영자, 이경숙, 이엘리, 김지연, 유필균, 조규철, 이민규, 이병설, 구현주님이 암에서 완치를 받았습니다. 다시는 암이 재발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7. 신형진님이 9차까지 맞은 스피리타 주사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계속적인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9차 이후 주사의 효과가 미미하다고 의료보험 공단에서 주사를 놔주지 않고 있습니다. 스피리타 주사가 절실한 상태입니다. 신형진이 다시 스피리타 주사를 맞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후원자님들의 기도제목을 보내주시면 증보기도 모임에서 함께 기도해드립니다.

street9106@naver.com 010-2210-9106<문자로>

후원자님께 드리는 편지

봄이 오고 있습니다.

산과 들에는 봄이 오고 있는 소리가 소곤소곤 들리고 있습니다.

우리네 가슴은 풍풍 열어 있습니다만 우리에게 봄을 주시며 희망을 노래합니다. 머지않아 산수유, 진달래, 개나리, 목련...피어나겠지요.

목적 현금을 보내주신 미국 뉴저지의 조은래 님에게 감사드립니다.

십일조를 보내주신 강원봉 김정미, 김영진 손미나, 김용수 송연숙, 유진상 황귀용, 이성웅 이한나, 진승현 정종대가족에게 감사드립니다.

강덕희, 강모승, 고무원, 구명신, 김가람, 김갑희, 김명숙, 김미영, 김영림, 김영선, 김태희, 나은선, 노아, 도문식, 문영숙, 박금용, 박문희, 박민상, 박수현, 박윤희, 박재웅, 박철규, 박혜수, 성찬영, 손경희, 신형진, 신혜영, 엄춘란, 유광현, 유영재, 유정옥, 윤원식, 이고은, 이세린, 이은주, 이은혜, 이재희, 이주희, 이현숙, 이해진, 임나리, 임윤엽, 장종숙, 정경희, 정영남, 조다윗, 조미영, 주님께 감사, 최영화, 최진옥, 하나님께 감사, 한은숙님께 감사드립니다.

교회에서 보내주신 (기감)안양감리교회, (기성)아현성결교회 (예장) 경주제일교회, 영락교회, 애수향교회, 베이직 교회에 감사드립니다.

기관 감사 현금을 보내주신 온누리 약국 복지회에 감사드립니다.

개인 감사현금을 보내주신 김명수, 신현우, 주영훈, 김용수 송연숙, 이성웅 이한나, 감사드립니다. 미안마 현금을 보내주신 김미영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이티 선교현금을 보내주신 변영록, 조경숙, 한종석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이티, 미안마, 멕시코, 중국, 북한의 고아들을 섬기는 일에 현금해 주신 손길에 감사드립니다. CMS를 통해 매달 후원해 주시는 손길에 감사드립니다.

소중한 사람들 암환우 힐링센터 섬김 현금을 해 주신 손길에 감사드립니다.

*후원자님들의 사랑과 후원에 힘입어 집을 잃고 가족을 잃고 앞날의 희망마저 잃고 거리에서 유리하던 노숙인들이 무료급식 혜택을 받고 365일 매일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아이티, 미안마, 멕시코, 중국, 북한 등 열악한 환경에서 부모 없는 고아들이 희망과 꿈을 키우며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암환우 힐링센터 운영을 위하여 현금을 보내주신 손길을 통하여 암환우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천국을 소망하며 구원받고 있습니다. 환우의 가족들이 구원받고 있습니다.

암에서 치유받고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의 사역자로 헌신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사람들 사역을 위해 힘에 겹도록 후원해 주시고 동역해 주시는 후원자님들의 사랑의 수고로 이 모든 사역을 힘 있게 하고 있습니다.

후원자님들이 겪고 있는 가족 간의 관계가 화목 되고 평안하기를 소원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질병의 고통에서 온전히 치유되기를 기도합니다.

신형진님이 스피리타 주사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청평 소중한 사람들 암환우 힐링센터에 입소해 있는 암환자 신형진, 최유운, 김정신, 정종대, 정은영, 황우진, 김연자, 이해우, 박효정, 배윤경, 이재희, 정은정, 정종순, 전상희, 김동일, 최성숙, 김홍덕, 정경희, 장경순, 장호형, 원명분, 허혜영, 박수진, 이희경, 유옥렬, 서정민, 김순임, 한치용, 조일구, 김주연, 선종석, 방미란, 정소녀, 최은영, 김동숙, 입소해 있는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청평 소중한 사람들 암환우 힐링센터에서 암을 치유 받은 박효정, 이해호, 이복희, 이상철, 이희열, 이기열, 박영례, 김현충, 최은희, 이해숙, 김연희, 이옥경, 안정희, 유춘애, 이영숙, 정동익, 이정화, 고혜옥, 김순정, 최정임, 권은미, 이미진, 신현숙, 박경미, 황순찬, 구재온, 인종복, 김미희, 윤채원, 장영희, 김하양, 이순조, 김지윤, 김형식, 권유승, 이은규, 주재희, 허미옥, 최봉관, 육춘기, 최영자, 이경숙, 이엘리, 김지연, 유필균, 조규철, 이민규, 이병설, 구현주님이 암에서 완치를 받았습니다. 다시는 암이 재발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21년을 한결같이 소중한 사람들과 동역해온 후원자님들에게 날마다 영혼을 구원하는 기쁜 소식을 후원자님들께 선물하는 소중한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소중한 사람들 유정옥 드림

